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0월 2일
제1916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루카 17,5-6)



〈기도하는 사람들〉, 김옥순 수녀 작

연중 제27주일 (다해)

제 1 독서 하바 1,2-3; 2,2-4 |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화답송 시편 95(94)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서 2티모 1,6-8.13-14 |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음 루카 17,5-10 |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에 ⁵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⁶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⁷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⁸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⁹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¹⁰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종과 주인에 관한 비유를 조금 각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은 아침 일찍부터 주인의 밭으로 나가 일하거나, 들로 가서 주인이 아끼는 양들을 치며 온종일 그의 재산을 돌보고 관리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서둘러 음식을 마련하여 주인을 식탁으로 모신 뒤 허리에 띠를 매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고 나서야 하루의 긴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종은 그제야 비로소 편히 먹고 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품삯으로 계약을 맺은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느님께 온전히 속한 종으로서 그 일들을 수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시중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거나 마치 큰 빛을 진 것처럼 종을 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껏 해 온 일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며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우리의 처지를 망각한 것이 되고 맙니다. 임무를 마친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바른 대답은 이러합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이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맞는 말씀이기는 해도, 조금 서운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을 함부로 부리는 주인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경각심 차원의 말씀일 뿐,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사실은 매우 관대하게 자기 종들을 대하는 분이심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혼인 잔치에 간 주인이 자신을 기다리던 종들을 보고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를 전하는 루카 복음의 또 다른 비유도 함께 기억합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12,37).

<정천 사도 요한 신부>

목주 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지낸다.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목주 기도 성월은 10월 7일의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관련이 있다. 16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로마를 침공하였을 때, 비오 5세 교황은 그리스도교 국가들과 연합군을 편성해 대항하였다. 1571년 10월 7일 연합군은 목주 기도를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날을 기억하고자 비오 5세 교황은 ‘승리의 성모 축일’로 정하였고, 훗날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뀌었다.

목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이 10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목주 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였다.

목주기도의 아름다움

- 프란치스코 교황 -

여기서 저는 어느 단순하고도 명상적인 기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위대하든 보잘것없든,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누구나 손쉽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주기도입니다.

목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동정마리아에게 의지합니다.

성모님이 우리를 당신 아들인 예수님과의 더욱 긴밀한 일치로 이끌어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느끼고 행동하며 예수님을 본받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제로 목주기도에서 성모송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의 신비에 대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목주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여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마음과 가정, 사회,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목주기도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엮어서 꽃다발을 선물해 주듯이 바치는 기도랍니다.



〈바오로딸 콘텐츠〉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병자 영성체

- 일시 : 10월 7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사무실 (703) 968-3010
- 10월 5일(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아세례

- 일시 : 10월 8일(토) 오후 2시
-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4 단체장 회의

- 일시 : 10월 9일(일) 오전 11:30 (B-1,2)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0월 9일(일) 오후 1시 (B-3,4)

6 청소년 견진성사 미사

- 일시 : 10월 17일(월) 오후 7:00
- 교구장이신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견진성사 미사에 주일학교(CCD, CYO)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 주교님을 맞이해 주시고 견진성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10월 17일(월)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7 불우이웃 돕기 5K 걷기/달리기

- 일시 : 10월 22일(토) 오전 8시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성당 친교실/사무실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 \$30(3명)
- 문의 : 복지부장 김 소피아 (703) 314-0905
※ 아침식사로 순두부 백반을 드립니다.

8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49,220
- 강기호(뜨란치스코,강승희 요한의 아들) : \$ 25,000

9 CYO 학생들을 위한 알링턴 교구 RALLY 행사

- 일시 : 10월 23일(일) 12pm - 8pm
(성당에서 오전 11시에 출발)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신청 : 10월 9일(일)까지
학생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참가비 : 한 학생당 \$10 (티셔츠/저녁 포함)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춘천교구 주교님 방문 미사

춘천교구 주교님이신 김주영 시몬 주교님께서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2" 회의 차 DC에 오시면서 본당을 방문하십니다.

주교님 미사는 이번 주 **10월 2일(일) 5시** 미사입니다. 공지가 늦었지만 많은 신자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2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국제정의평화 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민족 화해위원회, 동북아 가톨릭 평화 연구소 주관으로 "Catholic Korea Peace Forum 2022"가 10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Washington D.C.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한국 천주교회에서 다섯 분의 주교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0시간의 기도 (The Forty Hours Devotion)



YEAR ONE: REMEMBER

교구 회년(50주년)을 준비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알링턴 교구 전체 본당에서 40시간 신심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40시간의 중심에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심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은 **10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40시간 신심기도를 봉헌합니다. 40시간 기도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fortyhoursdevotionschedule/>

◇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병자성사, 면담성사, 사무실·상점 축복, 가정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10월 목주기도 성월

목주기도는 단순하고 가난하기에 매우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신앙, 겸손한 희망, 단순하고 충실한 사랑과 같은 근본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자크 필립 지음, 주교님 옮김

◇ 2차 헌금 안내 ◇

다음 주일(10월 8일-9일)은 멕시코 보이뚜찬 마을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 활동을 위한 2차 헌금과 모금이 있습니다.

♡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25일(연중 제26주일)

주일 헌금	\$ 6,766.00
교무금	\$ 3,720.00
교무금(신용카드)	\$ 3,560.00
감사 헌금	\$ 20.00
온라인 봉헌	\$ 2,315.00
합계	\$ 16,38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0월 6일(목) 오후 5:00 - 6:00
- 10월 7일(금) 저녁 8:00 - 9:00
- 10월 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8) 이탈리아 성 오르소 성당 1
3. 한국 교회사 : (7) 한국 최초의 사제 주문모 야고보 신부 (2편)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